

# 혁신도시 기관들, 지역주민 삶까지 돌본다

### 한전 등 주민지원 예산 확대...전년비 22억원 증가한 66억원 책정 사학연금·aT 등 문화프로그램 진행...체육시설·사내 도서관 개방도

올해 한국전력 등 5개 혁신도시 기관이 지역주민지원 예산을 늘렸다. 이 기관들은 문화강좌를 열고 사내 시설을 공유하면서 지역 주민과 접촉을 넓힐 계획이다. 13일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17개 기관이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올해 '주민지원·지역공헌' 예산은 총 66억4900만원(99건)으로, 지난해 실적(44억7100만원·111건)보다 48.7%(21억7800만원) 증가했다. 나주 혁신도시를 포함한 공공기관 이전도시 12곳의 올해 주민지원 예산은 448억2700만원으로, 지난해(429억5000만원)보다 4.4%(18억7700만원) 늘었다. 대구가 80억8000만원으로 전체의 18% 비중을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빛가람혁신도시 비중은 14.8%로 대구 뒤를 이었고, 경북(64억9500만원), 충남(62억6100만원), 부산(60억2100만원), 경남(54억5200만원), 강원(23억2000만원), 울산(21억6000만원), 전북(5억원), 충북(4억4700만원), 제주(2억5800만원), 세종(2억38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나주 혁신도시 주민지원 예산의 절반(51.8%)은 한전이 차지했다. 올해 한전 주민지원 예산은 34억4400만원(13건)으로, 지난해 실적 4억6600만원(6건)의 7.4배 수준으로 뛰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전년보다 1800만원(1.9%) 많은 9억4500원(8건)을 주민지원에 쓰

기로 했으며,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은 400만원에서 올해 1000만원(6건)으로 예산을 150% 늘렸다.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도 1600만원에서 5억1600만원(6건)으로 예산을 30배 넘게 잡았고,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도 1300만원에서 1500만원(4건)으로 소폭 올렸다. 반면 8개 기관은 주민지원 예산을 감축했다. 올해 한전KDN 예산은 3억2000만원(5건)으로, 전년 13억3200만원(8건)에 비해 76.0%(-10억1200만원) 줄었다. 한전KPS(12억6100만→10억6800만원), 한국전력거래소(2억8700만→2억6100만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5200만→3200만원), 우정사업본부(2300만→1800만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1500만→700만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1000만→600만원) 등도 예산이 감소했다. 지난해 200만원을 주민지원에 쓴 국립전파연구원은 올해 예산을 '0원'으로 잡았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예산은 지난해와 같은 700만원이었다.

올해 나주 혁신도시 기관들은 '따로 또 같이' 지역주민 삶에 보탬이 될 만한 사업을 발의한다. 사학연금과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방송통신전파진흥원, 인터넷진흥원, 전력거래소, 농어촌공사,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등 7개 기관은 '사회적가치실현의회'를 꾸려 지역 문화행사를 펼친다. 이들 기관은 혁신도시 주민을 대상으로 오는 23일까지 2주 동안 '빛가람 도란도란 클래스'를 진행한다. 올해 세 번째 여는 이 강좌는 전남도·나주시와 혁신도시 기관, 주민이 함께하는 대표적 상생 문화프로그램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소상공인 판로를 지원한 실적을 인정받아 올해도 '지자체 지역발전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전남도와 나주시가 각 1500만원 예산을 보냈다. 여기에서는 지역 소상공인과 협력해 석고방향제, 꽃 떡케이크, 꽃바구니, 팝아트 등 8가지 주제를 담은 강좌를 진행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한국인터넷진흥원 블록체인 국민참여단 모집

30일까지 신청 8월 발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2021년 블록체인 국민참여단'을 이달 30일까지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참여단은 블록체인 시범사업 서비스 체험 및 개선의견 도출·소셜미디어(SNS) 활용 서비스 경험 공유 등 활동을 수행한다. 모집 인원은 130명이며, 오는 8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활동에 들어간다. 인터넷진흥원은 우수 참여자를 뽑아 시상할 계획이다. 인터넷진흥원은 블록체인 기술발전과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 2018년부터 '공공선도 시범사업'과 '민간주도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 국민참여단은 지난 2019년부터 시행해왔다. 올해 시범사업은 전년보다 6개 많은 19개를 운영한다. 이들 사업에 대해 3개월 이상 서비스 실증 기간을 운영해 사업 결과물의 완성도를 높일 예정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스마트 통합제어장치 신기술 공개  
한전KDN(사장 김장현·가운데)은 지난 8~10일 광주시 차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신재생에너지 박람회 'SWEET 2021'에 참가해 '유무선 복합형 스마트 통합제어장치(DCU)' 등 자체 신기술 2종을 공개했다. <한전KDN 제공>

## 전기차 충전소 검색·예약·결제 내비게이션서 한번에 해결

한전 '차징플래너' 서비스 제공  
한국전력은 내비게이션을 통해 전기차 충전소를 검색하고 예약 및 결제까지 가능한 '차징플래너(Charging Planner)'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한전은 지난 9일 국내 내비게이션 업계 1위인 티맵모빌리티와 '전기차 충전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맺었다. 차징플래너는 내비게이션을 활용해 경로상 가

까운 위치, 충전기 상태, 충전요금 정보를 고려해 최적의 전기차 충전소를 추천해준다. 이용자가 희망하는 시간에 충전할 수 있는 예약 기능과 결제 서비스도 제공한다. 한전은 티맵과 협력해 주차요금 할인 간편결제 서비스도 개발해 전기차 충전 후 출차 때 주차요금을 자동할인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전기차 이용자가 주차요금을 할인받으려면 출차 때 고객센터를 방문하거나 CCTV를 이용해 주차장 운영사에 할인을 요청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한전은 이외 자사 충전기뿐만 아니라 여러 민간 사업자의 충전기도 차징플래너를 이용할 수 있게 T맵을 전기차 로밍 플랫폼인 '차지링크'에 연계할 계획이다. 한전이 개발한 차지링크는 모든 전기차 충전 사업자와 이용자를 연결해주는 서비스다. 이종환 사업총괄부사장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수송 부문의 탈탄소화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이번 협력으로 전기차 이용자의 편의를 개선함으로써 전기차 보급을 앞당기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

## 소상공인·중소기업 임대료 감면 연장

농어촌공사 연말까지  
임대료 50% 감면·동결  
한국농어촌공사는 코로나19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임대료 50% 감면 및 동결 등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은 공사 소유 부동산을 임차, 임대료를 지불하고 사용 중인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의 소상공인과 자산 총액 50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이다. 월 임대료 50% 감면과 다음 차수 1년 간 임대료

를 동결한다. 확진자 발생이나 방문으로 인한 임시휴업 업체는 해당 기간 임대료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이 희망하면 계약기간을 연장한다. 공사는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374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23억 6500만원의 임대료를 감면했다.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는 "감면 내용 등은 전국 지사에서 지일 대상 임차인에게 직접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알려주는 등 감면 혜택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한전KPS, 안전보건활동 우수사례 대상

사회안전망 구축 공로 인정  
한전KPS는 최근 열린 '공공기관 안전보건활동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대상인 '고용노동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오명근 한전KPS 재난안전실 안전총괄부 부장이 대상을 받고, 삼천포사업소가 최우수상인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상을 받았다. 한전KPS는 명예 산업안전감독관을 운영하는 등 사회안전망 구축과 안전보건활동 모범사례를 산업계에 전파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전력그룹사 가운데 처음으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인 KOSHA-MS와 ISO 45001을 받고, 이를 운영하기 위한 최적화된 체계를 구축했다. 비대면 방식 안전교육 교안을 개발하고 협력사 안전보건 지원, 일일 유해위험 등급제 도입 등도 추진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공공기관 안전보건활동' 대상을 받은 한전KPS 오명근 부장.  
한전KPS는 올해 3년 연속 중대재해 '0'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재해예방 활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도초도 섬내 시세 9억

- ▶ 임야 29,455㎡(구 8910평), 전망 좋음
- ▶ 회사 정리 차원에서 그냥 드립니다.
- ▶ 대출 1억2천만원, 사채 1억, 승계 가능자

### 오피스텔 매매 임대

- ▶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 ▶ 8층, 계약 108㎡ 전용 67㎡
- ▶ 사무실 전용, 창가, 전망 좋음
- ▶ 매매 - 1억1000만원
- ▶ 임대 - 보 1000만원에 월 60만원

### 덕남동, 임야

- ▶ 장·단기 최고 투자처
-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 ▶ 각종 개발 호재 많음
- ▶ 임야 661㎡, 지분매매
- ▶ 매매 - 6000만원

### 오피스텔 신축부지

- ▶ 신안동, 대지 582㎡(구 176평), 상업지역
- ▶ 지하 1상 10층, 15평, 72개 허가특
- ▶ 법인 양도·양수 가능
- ▶ 분양/임대 100%될 장소
- ▶ 매매 - 협의

문의. 010-3605-5000